



꽃망울 터뜨린 황설리화

전남 장성군 장성읍 김중우 씨 주택 마당에 지난 8일 황설리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황설리화는 선달에 피는 매화라는 뜻의 '납매(臘梅)'라고도 불리며, 겨울 끝자락에 꽃망울을 틔어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군

울산시 “노동을 존중하는 도시로”

‘노사상생도시 만들기’ 본격 추진

울산시가 대립적인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노동자치와 기업가치’가 공존하는 노사상생도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10일 ‘2019년 시정 10대 핵심 과제’의 하나인 ‘노사상생 정책을 통한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은 ▲경제사회노동학회의 ▲노동기본권 증진 ▲노동복지 확대 ▲노동단체 지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경제사회노동 학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경제사회노동학회의는 기존 노사민정 협의회의의 자문이나 선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직접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신(新) 노사상생 지역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센터가 오는 5월경에 설치·운영할



울산시가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예정이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구·군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3~4월 중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동조합회관을 4층 규모로 증축하여 노동법률원, 이주노동자센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최인택 기자 remark@

광주 북구-LH, 주거급여 대상자 집수리 지원

광주시 북구가 생활이 어려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와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수급자 141세대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등) 378만원, 중보수(창호·난방공사 등) 702만원 대보수(지붕·욕실 개량 등) 1026만원이며 장애인과 고령자는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북구는 ‘행복복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며 올해는 도배, 장판, 창호, 욕실 개량 등 일반적인 집수리뿐만 아니라 초인종과 주거관련 물품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광주 북구=봉태영 기자

경기도 ‘문턱 없는’ 관광환경 조성

장애인 등 약자 위한 ‘배리어프리’ 3곳 선정 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경기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모두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문턱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비 24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90억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과 이동권 강화 ▲정보접근 체계 구축 ▲문턱 없는 관광콘텐츠 구축과 시범투어 추진 ▲관광서비스와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도는 먼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매년 도내 주요 관광연의시설 3곳을 선정해 경사로·보행로 등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도종합장애인복지관(누림센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버스 1대, 카니발 4대)을 도입한다. 장애인 단체나 가족은 유튜브나 보험료만 부담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정보접근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4억원을 들여 임진각 관광지에 관광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시흥갯골생태공원.

/경기도

안내체계를 만든다. 어린이와 외국인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픽토그램(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디자인)과 장애인을 위한 표지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약자를 위한 가이드북과 점자, 사진 메뉴판을 제작하고, 주요문화시설과 관광지에 다국어 음성안내가 가능한 쿼알(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한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유형,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에 맞춘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연간 10차례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관광업계 종사자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도 한다.

지난해 전체 방문객 가운데 장애인이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 관광약자가 23.3%를 차지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여행하기에 어려운 관광지가 아직 많다”면서 “장애인, 영유아, 노인, 외국인과 같은 관광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장성군, 쌀 생산량 1위... 단계별 정책 성과

524kg 생산... 전남 시·군 중 최고 쌀농업 지원으로 증대 효과 극대화

장성군의 단계별 쌀 농업 정책이 독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몇 년간 전남 도내에서 높은 쌀 생산량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단보당 521kg이던 생산량이 2017년 535kg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이상저온과 폭염 탓에 다소 줄었다. 하지만 524kg을 생산해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장성군이 이 같은 쌀 생산성 증대가 생산단계부터 기술지원, 유통까지 단계별 쌀농업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선 재배과정에는 상토 및 매트, 맞춤형비료, 육묘상자처리제, 액상규산 등 농자재를 비롯해 경화장, 건조기, 지게차 등 농업시설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농자재도 농업인이 참여하는 심의



쌀 수확 장면.

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제품이 일괄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 증대 효과가 크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정부 보급종 가격과 수매가 차액을 1만원씩 보조해주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초기 병해충 피해 예방 등 쌀 품질향상은 물론 단위면적당 쌀 수확량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방제단계에서는 ‘병해충 공동방제’가 추진된다. 광역방제기나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계별 농약을 일제히 살포하는

방제 작업으로,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일정한 품질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농자재가 일괄 공급되고, 적기에 맞춰 공동방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장성 쌀 품질이나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생산단계뿐 아니라 쌀 판로 확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해외 쌀시장 공략에 나선 장성군은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러시아와 미국 등에 총 17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몇 년 간 쌀 농사에 대한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해 왔고 그 결과 생산비가 절감되고, 품질까지 향상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정성스레 길러진 쌀이 제 값으로 유통되고 또 해외 시장까지 판로를 넓혀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나아가 쌀 농업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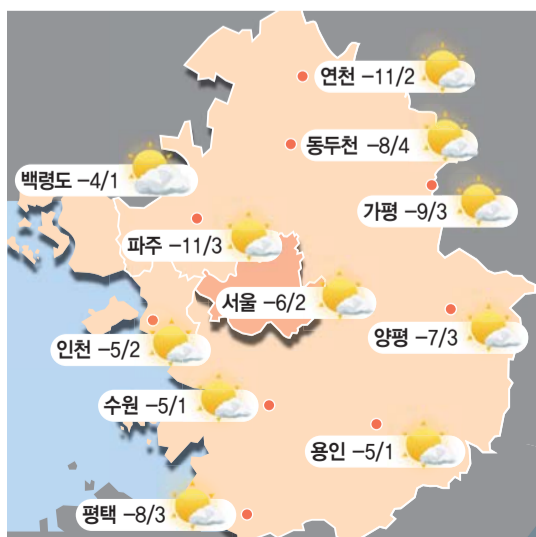
해돋이 / 07:27 | 해질 / 18:06

2월

11월 (月)
음력 : 1월 7일

수도권 날씨

-6 ~ 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최형식 담양군수 “군민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

내일부터 군민과의 대화... 소통 행보

담양군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군민과의 열린 대화’로 본격적인 현장소통을 시작한다.

군은 10일 올해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2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소규모 사업성 건의 위주로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 주민들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읍·면 현안사업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등 행정의 문턱

을 낮추는 ‘참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화 일정은 ▲12일 담양읍, 봉산면 ▲13일 고서면, 대전면 ▲14일 창평면, 대덕면 ▲15일 무정면, 수북면 ▲18일 용면, 월산면 ▲19일 금성면, 남면 순으로,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단순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닌 군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당면 과제에 대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답을 찾는 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사진)이 정부로부터 2018년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국장은 지난해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16년간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공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했다. 또 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서남권공항 활성화 협업팀’을 구성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의 필요성, 공항 통합시기, 접근성 및 교통대책 등을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